

## 26학년도 6평 생활과 윤리 Zola 분석

주의: Zola의 자료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세요~~

<차례>
I. 총평 및 전체 경향
II. 문항별 간단 정리
III. 기타 참고 자료

### I. 총평 및 전체 경향

1. 기출+교육청 모음집 같은 느낌임. 개인적으로 교육청 냄새가 많이 남.
2. 강사 입장에서는 내 방식대로 그대로 가르치면 잘 되겠다는 느낌을 받는 시험임. 단, 수능이 이대로 나올지는 미지수임. 작년 6평, 9평 방심하게 하다가 수능 좇았음.
3. 문항 분석 틀과 6평

#### (1) 분석 틀

생운 문제 유형	주제 또는 문항 형식
독해 주제	[주제] 삶과 죽음의 윤리(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 윤리/사랑과 성 윤리/청렴(직업 윤리)/정보 사회와 윤리/의식주 윤리/대중문화 윤리/갈등 해결/민족 통합 [문항 형식] 핵심쟁점/3단 논법/신문칼럼/X-Y-Z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죽음관 사상/직업관 사상/사랑 사상/과학 기술과 윤리/예술과 윤리/다문화 모형/종교 윤리(엘리아데)/소통 윤리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 (지하)	윤리학 구분/동양 윤리 이론(가끔 예외)/서양 윤리 이론(가끔 예외)/국제관계론/평화론(갈통)
지식 비중 높음& 지식 수준 높음 (지상)	1등급이 되기 위한 필수!!

#### (2) 6평 문항 분포

\* 대체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임. 개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향이 아님.

생운 문제 유형	번호	배점(점)	특이사항
독해 주제	11, 12, 18	7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2, 3, 5, 7, 9, 16, 20	15	지식정보다 독해형쪽임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 (지하)	1, 4, 13	8	
지식 비중 높음& 지식 수준 높음 (지상)	6, 8, 10, 14, 15, 17, 19	20	6-① 지식+간단 추론 15-ㄴ, ㄷ-바나나 19-ㄱ-바나나

♥ 순수 독해 가능: 총 16점: 3, 5, 7, 11, 12, 18, 20번

3. 1컷 예상(역대 비교 자료)

	6월	9월	11월 대수능
14학년도(첫 시행)	45	47	47
15학년도	43	47	45
16학년도	47	41	50
17학년도	44	43	47
18학년도	45	47	50
19학년도	45	50	50
20학년도	47	48	48
21학년도	47	48	50
22학년도	45	50	48
23학년도	47	47	45
24학년도	43	44	50
25학년도	45	47	41
26학년도	44~45???		

[참고] 최근 5개년 수능 1~3등급컷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1컷	50	48	45	50	41
2컷	47	46	41	47	37
3컷	43	44	36	43	32

## II. 문항별 간단 확인

### ※ 문제 출처 보는 법

24-6-3 : 24학년도(23년 시행) 6평 3번

24-10교-3 : 24학년도(24년 시행) 10월 교육청 3번

24 ebs 수특: 24년 발간(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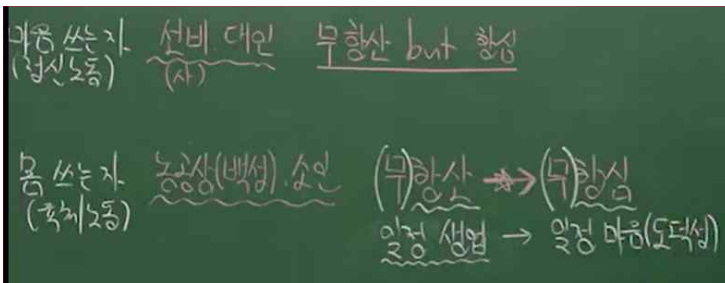
### 1. 생략

이 문제의 해설이 필요하다면 남은 개념 공부를 해야지, 해설을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음.

2. 갑은 맹자, 을은 순자. 사상가를 몰랐다면 해설 보지 말고 공부를 다시 할 것. 직업관 묻는 문제에서 맹자와 순자 구분하지 못하면 공부를 안 한 것임.

ㄱ만 제낄 수 있으면 됨. 아마 모든 샘들이 강의한 내용일 것 같음.

17강 직업 사상가 (1)



참고로 24년(작년) ebs 수특 66쪽 2번 문제임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몇몇한 생업[恒産]이 있는 백성은 몇몇한 마음[恒心]을 가지고, 몇몇한 생업이 없는 백성은 몇몇한 마음이 없는 것이니, 만일 몇몇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간사하며 사치하여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백성들이 이로 인해 죄를 지은 후에 이에 따라 형벌을 준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 보기 •

- ㄱ. 군주는 백성들에게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ㄴ. 군주는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항산(恒産)의 보장에 두어야 한다.
- ㄷ. 백성들은 몇몇한 직업을 갖고 나서야 도덕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 ㄹ. 모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도덕적인 마음[恒心]을 유지할 수 없다.

3. 사실상 독해 문제임. 설명할 것이 없음.

갑: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기술은 인간에 결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노동을 통해 실현되므로, 그것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 그 자체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을: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기술 속에 숨어 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 ① 갑: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다.
- ② 갑: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 ③ 을: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④ 을: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길 때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갑과 을: 기술의 본질은 윤리적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4. 사상이 필요없고 동양 사상으로 풀림.

갑은 유가(공자), 을은 도가(노자)임. 을의 포인트는 아래 표시한 부분임.

참고로 을의 첫 문장이 갑을 비판하는 문장임. anti 유가가 도가임. 을의 문장은 배우지 말고 도를 행해서 날마다 덜어내라는 것임. 그러면 세상 좋아진다는 것임. 갑의 '배움'과 자신의 '도'를 대조하는 것임. 역시 평가원인데 님들은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음.

갑: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벗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君子)답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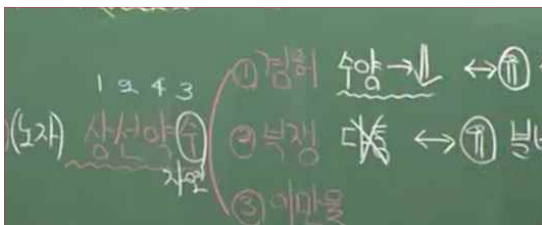
을: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道)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하지 아니함에 이른다.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 않음=무위

선지 ④를 보면서 '이만물'과 '부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님 암기가 약한 것임. 헛수를 늘리든 강도를 늘리든(강도 늘리는 방법은 백지 복습이 짱임) 뭐든 늘리셈!

④ 을: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은 도에 가깝다.

----- Zola 생운 1 강의 중에서----- 25년 수특 19쪽 -----



★ 상선약수  
'으뜸이 되는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임.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이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봄

5. 독해로 답이 나옴. 독해 분석은 생략함.

선지 ②는 기출 선지임. 단, 이데아 개념 알면 인간이 이데아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음.

but

이데아라는 단어(워딩)는 알아도 이데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음. 안타까움.

[23-9-20]

20.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예술가는 사물을 모방할 수 있을 뿐 이데아 자체를 만들 수는 없네. 그래도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은 영혼의 교화에 도움을 주네. 이때 음악적 수련이 가장 가치가 있네. 왜냐하면 리듬과 화음은 영혼 안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 주기 때문이네. 그러하니 작품 속에 무절제와 야비함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예술가를 추방해야 하네.
(나)	제자: 예술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 예술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스승: 예술가는 _____ ㉠ _____

- ① 예술을 위한 예술 활동에 전념해야 하네.
- ② 국가가 예술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네.
- ③ 사람의 선한 성품을 작품 속에 표현해야 하네.
- ④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하네.
- ⑤ 사물이 나누어 가지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창조해야 하네.

참고로 위 문제도 아래의 기출 활용한 것임. 다시 말해 이번 6평의 선지 ②는 기출의 기출을 모방한 것임.

[21-수능-5]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예술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아름다운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 주고, 미추(美醜) 감각을 키워 준다. 품위 없는 리듬과 화음은 나쁜 말씨나 고약한 성질과 연결되니, 작품 속에 선(善)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을: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고, ㉡ 예술가는 미적 가치를 통해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 예술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예술은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이라고 본다.

6. 핵심 지식+단순 추론하는 문제임.

롤스-①의 사회의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정의의 원칙-공유된 정의감-시민 불복종의 기준 이렇게 연결되면 다음엔 단순 논리임.

**단순 논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지 '기준'에 저항(불복종)하는 것이 아님.**

칸트 응용하면 칸트의 도덕은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지, 도덕 법칙에 불복종하는 것이 아님.

롤스에 적용하면 롤스의 시불은 공유된 정의감을 따르는 것이지, 공유된 정의감에 불복종하는 것이 아님.

진짜 단순 논리임. 머리 굴리는 연습이 안 되면 이런 단순 논리도 다 지식으로 커버해야 함. 보고 있으면 답답함.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정치학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 ①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 ②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③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 ④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 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아래 두 문제 확인해 볼 것.

[19-9-19]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 기>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계에 항거하는 것이다.
-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2-7교-14]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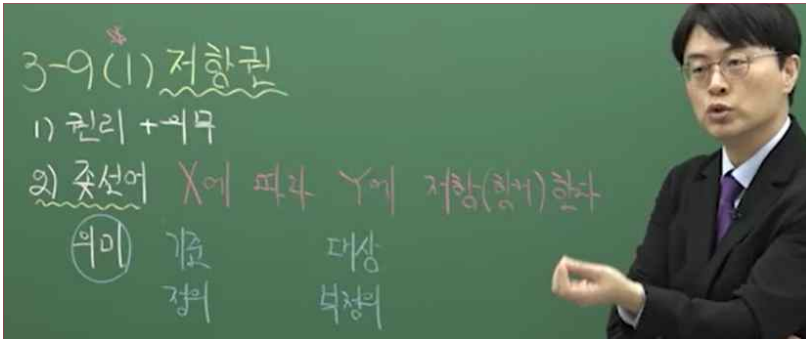
시민 불복종은 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의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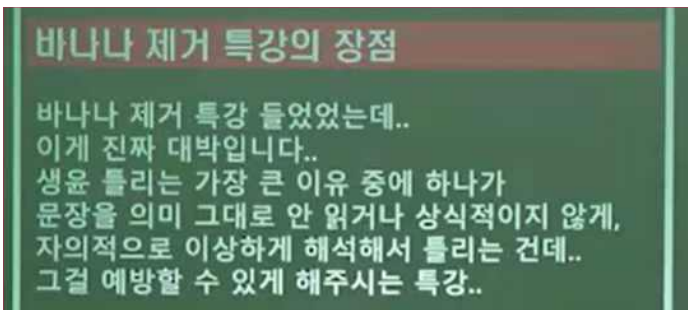
- ㄱ.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모든 부정의한 법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한 양심적 신념의 표현이다.
- ㄹ.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도하는 공개적인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참고로 국어 표현 약한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 강의에서 국어 표현까지 연습시켰음. 칠판에 적힌 쫓선어가 님들의 국어임. 쫓선어 말고 국어를 배워야 함!!!!



7. 설명 생략.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될 듯. 사상 몰라도 됨. 틀린 분은 바나나 제거 특강 제발 듣길 바람. 이걸 공부하는 님은 레전드 바나나임. 국어+윤리적 상식으로 다시 풀어보셈.



8. 틀리신 분은 흡스-로크-루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계약론의 기본 구조를 모르고 있음.  
하도 답답해서 아래처럼 안내 글 올렸음.

 24 Zola(생윤은 김준호) [758219] · MS 2017 (수정됨) ·  
🕒 2025-06-04 18:41:08 조회수 698 😊 1

**생윤 계약론 8번 틀린 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336188>

---

**27강 국가와 시민의 윤리 (1) 국가관**  
**30분 정도부터 보세요.**  
**31분 15초에 딱 답 나눔.**  
님들은 흡스-로크는 알아도  
계약론이 뭔지 모르는 분들일 수 있음요.  
지금 강의 무료 공개니까 보세요.  
<https://class.orbi.kr/course/2568>

열공+즐공=대박!!

선지 ①, ④번 원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 이건 원전이 아닌 기본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람.  
마침 제 자료 교재에 나온 부분이 그대로 선지로 나와서 그냥 제 자료 교재 스크린샷하겠음.  
지금 보니까 심지어 밑줄까지 미리 그어두었음.  
자료교재 보시는 분들은 밑줄 꼭 보시고, 그리고 앞뒤 내용도 꼭 보셈. 앞뒤 내용이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

[흡스] 자료교재 125쪽

(7) 만인은 자연적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 자연(전쟁)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만물에 대한 자연권이 존속하는 한, 어느 누구도 자연이 허락한 삶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하여 다음과

[로크] 자료교재 127쪽

(4) 자연 상태에서처럼 확고한 법과 권위를 갖춘 재판관이 없어서 그런 호소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전쟁 상태가 다시 시작되고 지속된다. ... 이러한 전쟁 상태를 피하려는 것이 인간들 스스로가 사회에 편입되고 자연 상태를 멈추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참고로 로크 관련 필기 내용 일부임. 전쟁상태라고 분명히 필기되어 있음. 기본 중의 기본임.



자료교재는 수강생 아니어도 구매 가능함. 아래 글 참고할 것.

## 선생님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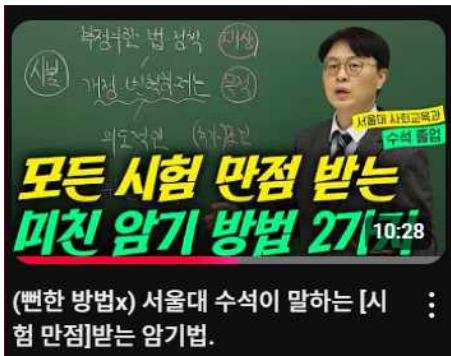
교재 구매 공지

<https://class.orbi.kr/teacher/164/notice/125758>

덧붙이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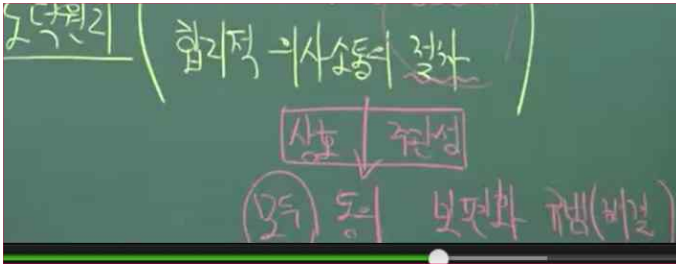
흡스-전쟁상태O, 로크-전쟁상태X라고 외운 분들은 암기법에 문제가 있음.

아래 유튜브 영상 꼭 보시길 바람.



<https://www.youtube.com/watch?v=YT22R6egwcs&t=331s>

9. 하버마스 담론 윤리 선지 ④ 모두 합의O, 다수 합의X  
이건 설명 안 하는 샘플이 없음. 모든 샘플이 강의함.



그러면 모든 샘플이 강의하는 이유가 뭘 것 같음? 당연 기출로 여러 번 출제되어서 그러함.  
[18-수능-5]

5.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 (나) 어떤 행위 규범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규범적으로 정당한 실천적 담론은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제 조건들에 근거해야 한다.

- ① (가):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가):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 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
- ③ (나):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 ④ (나): 담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 ⑤ (가), (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규칙이나 규범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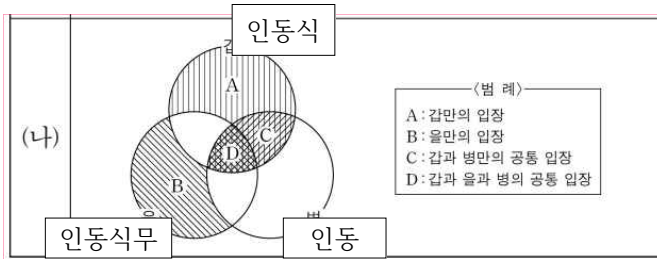
기출 N회독하셈.

10. 사상 '가' 지식까지 필요없고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소거법으로 풀면 쉽게 풀림.  
 일단 제시문 판단.

갑: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고유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대지가 단지 흙은 아니다. 대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먹이 사슬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살아 있는 통로이다.  
 병: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제시문 → → 우리의 판단	
갑: 유기체-고유의 선	생명 중심주의
을: 대지-토양-살아있는 통로	생태 중심주의
병: 쾌고	동물 중심주의

선지 개념 판단



<보 기>  
 가. A: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나. B: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다. C: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  
 르. D: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

선지 → → 우리의 판단	
가. 식물-내재적 가치 없음	동물중심주의 인정이므로 오답
나. 개체X, 공동체O	생태중심(전일론)이 부정하므로 오답
	가, 나 오답이므로 정답 나옴!!!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님들은 단어만 외우고 의미는 안 외우는 워딩 바나나일 가능성이 높음. 워딩 바나나들은 단어만 외움.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면 모름. 빨리 바나나에서 탈출하시길 진심으로 바람.

하나 더. 르 선지도 가이 활용된 아래 기출에서 따온 선지임.

[22-수능-14] 문제 <보기>만 제시

<보 기>  
 가.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나.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다. C: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르.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르  
 ④ 가, 나, 르    ⑤ 나, 다, 르

위 문제의 가과 비교 해 볼 것

위 문제의 르과 비교 해 볼 것

<보기> ㄴ 판단 틀리신 분은 기출 또는 개념이 구멍 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 모른다가 아니라 어딘가 구멍이 나 있음.

[25-9-6]

6.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지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을: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ㄴ.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ㄷ.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

ㄹ.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bs 해설]

6. 환경 윤리에 대한 레오폴드와 칸트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레오폴드, 을은 칸트이다. ㄱ. 레오폴드는 인간은 토지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ㄷ.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이다.                      정답 ②

[원전 근거] 자료교재 170쪽

⑥ 대지 윤리는 인간에게 자원들(흙, 물, 식물, 동물 등)의 사용, 관리, 혹은 변화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존속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것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integrity), 안정성(stability), 아름다움(beauty)을 보전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르다.

여기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밑줄을 그어두었네요.

11. 국어 문제임. 틀리신 분들은 국어 쌤 찾아갈 것.

12. 국어 문제임. 틀리신 분들은 국어 쌤 찾아갈 것. 자유주의-보수주의-중도주의 개념 몰라도 풀 수 있음. 이걸 맞추기 위해 개념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인생 낭비임.

13. 풀이 생략. 단순 최하급 지식임.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 대상으로 이걸 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국력 낭비임.

14. 개념이든 기출이든 하나만 제대로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임.

교정 정의는 사상가-개념-사형에 대한 입장을 하나의 문풀 틀로 외우셈.

교정 정의 문풀의 틀			
바나나	사상가 4인	개념 3개	사형에 대한 입장

내용은 님들이 공부한 내용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상가는 루소-베카리아-벤담-칸트가 있습니다.

갑-루소, 을-베카리아, 병-칸트입니다.

선지 ②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함정 선지입니다. 선지 ②를 선택하신 분들은 공부함에 있어서 개념을 극단화시키지 말아야 하며, 기출을 N회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 ③도 기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님들을 가르치는 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겠죠.

참고로 선지 ②와 ③은 모두 같은 기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문제는 22-6-19을 거의 카피해서 냈다고 보면 됨.

개념: 베카리아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효과가 '덜' 하다고 했지, 효과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중에서 21-10교-12번 선지 ④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일단 무시할 것(마더텅에는 132쪽에 실려 있음. 다른 기출문제집은 잘 모르겠음)

기출: [22-6-19]를 봅시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p> <p>을: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p> <p>병: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할 종신 노역형을 규정해야 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법 레〉</p> <p>→ : 비판의 방향</p> <p>A~F :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 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이번 6평 문제와 22-6평 문제의 공통점들

- (1) 일단 비판형임.
- (2) 사상가가 모두 루소-베카리아-칸트를 다룸.
- (3) 오답률 높은 선지와 정답 선지 모두 베카리아와 칸트에 대한 내용임.

- ① A, F: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③ C: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칸트 형벌론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 있으니 참고해 보셈.

시험에 나오는 내용과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접근하기 쉽게 끼워 맞춰서 설명했음. 시험 풀 때 유용할 것임.



<https://www.youtube.com/watch?v=6bDMUNwVPIQ&t=100s>

15. 롤스 공부하듯이 싱어 공부하면 시간 낭비이고, 싱어 공부하듯이 롤스 공부하면 롤스 망함.

싱어 1시간 공부할 때 롤스는 3~4시간 공부해야 함. 롤스를 비롯하여 칸트 계열은 뇌피셜이 강하기 때문에 개념들 뇌피셜을 다 외워야 함. 싱어는 공리주의로 간단히 해결됨.

갑은 롤스, 을은 싱어.

일단 싱어-공리주의 이용해서 드을 해결하면 됨.

<보 기>

- ㄱ. 갑: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ㄴ. 갑: 원조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 ㄷ. 을: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는 없다.
- ㄹ. 갑과 을: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ㄷ 판단. 공리주의는 결과(효과) 따짐. 따라서 ㄷ 거짓. 그러면 선지 ①, ④ 남으므로 ㄹ만 판단하면 됨.

이제 우리의 고민은 ㄹ임.

그리고 ㄹ은 바나나 사고로 해결됨.

여성 참정권 보장이

- (1) 싱어식의 공리성(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 같니? 응. 그러면 싱어 오케.
- (2) 롤스식의 정의 사회(인권보장) 만드는데 기여할 것 같니? 응. 그러면 롤스 오케.

ㄹ을 고르면 됨. 답 ④ 끝!!!

왜 틀렸나요???

ㄹ 근거의 아래와 같음.(단, 님들이 원전 내용을 몰라서 이 문제를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임.)

[롤스] 자료교재 229쪽

(8)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의 복지에 대해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다. ... 희망컨대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기근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사회에 속한 유력한 정부들에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 인권의 존중은 ... 여성을 위한 평등한 정의의 요소들을 확립하는 것이다. ...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 교육을 받고 활용할 권리, 부와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부여했다. ... 기본적 정의의 요소들은 건전한 사회정책의 본질적 요소로 증명되었다.

[싱어] 자료교재 232쪽

(11) 우리는 빈곤한 나라들을 도와서 그 나라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정부를 고무하여 토지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여성들을 교육하여 단순히 아이 낳는 역할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13) 우리는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극단적인 빈곤을 감소시킬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증가시킬 수도 있는 전망을 갖는 희생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가 우리의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를 원조할 책무는 없다. 이는 이러한 나라의 빈곤한 시민들에게는 매우 고약할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원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덧붙이자면, 같은 원칙이, 여성이 교육받는 것을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이, 원조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다.

나머지 선지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우선 ㄱ부터 보면,

ㄱ 선지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애들 중에 무법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당연 이것은 지식임. 만약 이 정도 지식이 없다면 다시 공부할 것. 왜냐하면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임.

하나 더 하자면 ㄱ 선지는 평가원 냄새도 나지만 교육청 냄새도 남. 평가원이 교육청화되었다고나 할까? 그냥 그렇다고.

[24-7교-16]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을 줄여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을: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부정(父情)주의적으로 행위 해서는 안 된다.

————— <보 기> —————

ㄱ. 갑: 원조 주체는 자기희생에 따른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

ㄴ. 을: 고통받는 사회를 위한 온정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ㄷ. 을: 자유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가 모두 원조 대상은 아니다.

ㄹ. 갑과 을: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무조건적 의무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4-6-14]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가 필요하다.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나 차단점을 넘어서면 원조는 필요 없다.

을: 절대 빈곤은 매우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힘이 있다면, 인류 복지의 최대화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갑: 공격적인 사회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

ㄴ. 을: 절대 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ㄷ. 을: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른 전 지구적 의무이다.

ㄹ. 갑과 을: 원조 대상의 경제력은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으로 너은 바나나지 않을까?

롤스의 경우 절대빈곤 생각해 보면 당연 경제적 지원 포함 '가능'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듯. 롤스는 경제적 지원 하지 않고 정치적(제도적)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너은 공부 다시 하실 것!

만약 롤스가 절대빈곤 도와줬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혹은 롤스는 빈곤 안 도와주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너의 지식 부족임. 기출로 2번 나왔음.

참고로 유튜브 찍어냈음. 심지어 하도 답답해서 쇼츠로까지 찍었음. 각성하라 바나나여!!



[https://www.youtube.com/watch?v=jj2\\_UIMH\\_20&t=545s](https://www.youtube.com/watch?v=jj2_UIMH_20&t=545s)



<https://www.youtube.com/shorts/ZCSsYudXT8>

16. 갑-도가, 을-불가임.

갑이 도가인 것은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 것 즉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추론 가능함. 아직 올해 수완은 모르겠는데, 이 제시문은 작년 수완에 있던 제시문임.

[24년 수완]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누가 무(無)를 머리로 삼고 삶[生]을 등뼈로 삼고 죽음[死]을 꿈무니로 삼을 수 있으며, 누가 삶과 죽음, 있음[存]과 없음[亡]이 한 몸임을 알겠는가.  
 을: 죽고 사는 것은 명(命)에 달려 있고 부유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군자는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남을 탓하지 않으며 명에 따라 살아갈 따름이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① A: 삶이 다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이어지게 되는가?
- ② A: 삶은 그 자체로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가?
- ③ B: 죽음은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만 하는 슬픈 일인가?
- ④ B: 도(道)에 시작과 끝이 존재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가?
- ⑤ C: 천명(天命)은 거역할 수 없으므로 생사(生死)에 얽매이는 것은 불필요한가?

[자료교재] 54쪽

5) 누가 무(無)를 머리로 삼고 삶[生]을 등뼈로 삼고 죽음[死]을 꿈무니로 삼을 수 있으며, 누가 삶과 죽음, 있음[存]과 없음[亡]이 한 몸임을 알겠는가.

자료 교재는 생운 첫해부터 작년까지 어려운 제시문, 낯선 제시문, 질문 많이 나온 제시문 내용 다 있음. 예전 선배들이 못 푼 것은 올해 님들도 못 풀 가능성이 높음.

선지 ⑤. 불가능는 생노병사를 비롯한 모든 것이 고통임. 기본 지식이라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음. 참고로 윤사면 '일체개고'를 알 것임. 생운은 굳이 일체개고가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음.

17. Zola는 분명 개념 공부할 때 평가원+교육청 같이 있는 기출 문제집을 구하라고 했음. 처음 공부할 때는 양 치기가 어느 정도 필요함. 그리고 이제는 교육청 문제에서 활용되는 것도 눈에 보임.

선지 ①은 교육청에서 먼저 사용했고, 이것을 올해 수특에서 활용했음. 그래서 이 문제는 수특 연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 먼저임. 교육청은 무려 21년에 나옴.

[21-10교-4]

4.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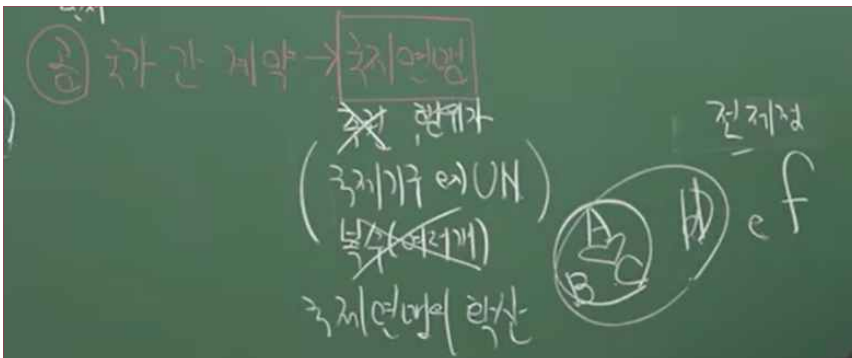
갑: 실천 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부과하더라도 국가 간의 계약 없이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 있어야 한다.

을: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 한 국가가 세력 균형의 유지와 재수립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군비 경쟁이다.

병: 군비 경쟁이 초래하는 전쟁이 사라져야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나아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 ① 갑: 다수의 국제 연맹을 창설해야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된다.
- ② 을: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국제 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 ③ 병: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한다.
- ④ 갑, 을: 국가들 간의 모든 분쟁은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⑤ 갑, 병: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비 경쟁을 삼가야 한다.

당연 Zola도 강의했음.



국제 연맹의 '확산'이지 이게 국제 연맹을 여러 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설명한 부분임

선지 ② 근거는 아래와 같음.

시험장에서 님들은 <국제법-평화연맹-독립(자유, 공화정) 국가...> 이렇게 연결적인 사고가 되면 됨.

[자료교재] 220쪽

(5) 국제법의 이념은 각기 독립된 다수의 인접 국가들이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태는 그 자체로 이미 전쟁 상태라고 할 수 있다(제국가의 연합적 합일에 의해 적대 행위의 도발이 예방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이념에 따르면, 바로 이 상태가 타국을 제압하여 세계 제국(정부, 국가)을 구축하려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제압되어 국가 자체가 소멸[합병]되는 편보다는 좋다. 왜냐하면 법은 정부의 통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며, 영혼이 없는 전제 정치는 선의 씨앗이 부패하면 최후에는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Zola가 밑줄 그은 부분 그대로 나옴.

하나 더. 17번 독해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평화 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을: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

제시문: 참가국의 자유 보호

선지 ②: 국가들의 독립 인정

- ① 갑: 평화 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 ② 갑: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 ③ 을: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 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 ④ 을: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
- ⑤ 갑과 을: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18. 알아서 푸실 것. 아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안타까움.  
단, 아래 부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눈치빨, 독해빨로 풀 수 있음. 그래서 굳이 원리 알기를 강요하진 않음.

[자료교재] 47쪽

※ 빈 칸을 완성하십시오.

96)1. 결론이 제시된 경우 1

도덕 원리(대전제) :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실 판단(소전제) : \_\_\_\_\_

도덕 판단(결론) : 내가 나의 몸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97)2. 결론이 제시된 경우 2

도덕 원리(대전제) : \_\_\_\_\_

사실 판단(소전제) : 임신 중절은 여성의 선택 사항이다.

도덕 판단(결론) : 임신 중절은 존중되어야 한다.

98)3. 결론이 없는 경우

도덕 원리(대전제) :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실 판단(소전제) :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도덕 판단(결론) : \_\_\_\_\_

99)다음의 빈 칸을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도덕 원리 : \_\_\_\_\_

사실 판단 : 맑은 구역을 청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도덕 판단 : 맑은 구역을 청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100)[17-6 활용] 전제 ㉔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하십시오.(그림 생략)

전제 ㉓: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전제 ㉔: \_\_\_\_\_ ㉕

결론: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101)[17-9 활용] 전제 ㉔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하십시오.(그림 생략)

전제 ㉓: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제 ㉔: \_\_\_\_\_ ㉕

결론: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02)[24-9 활용] 전제 ㉔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하십시오.(그림 생략)

전제 ㉓: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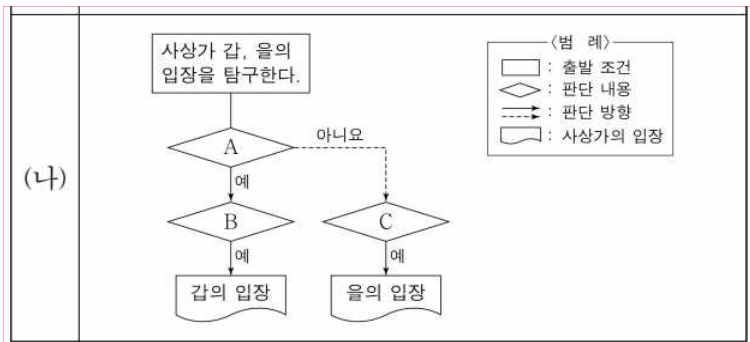
전제 ㉔: \_\_\_\_\_ ㉕

결론: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념 강의 10강에서 약 30분 정도 투자해서 설명했음. 생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이라고 생각함. 꼭 들어보시길 바람.

10강 바나나를 위한 도덕적 추론 연습[논리 훈련]

19. 갑이 노직, 을이 롤스인 것을 안다면 ㄱ을 날리는 것에서 시작하면 됨.



〈보 기〉

ㄱ. A: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ㄴ. B: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ㄷ. C: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ㄹ. C: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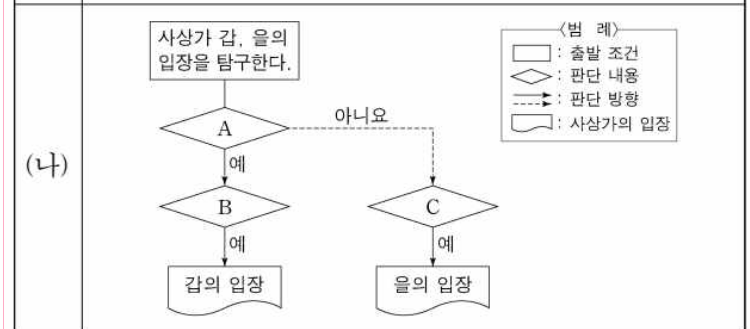
문제 푸는 순서  
 ㄱ을 날리면(아래 기출 참고)  
 남는 것은 선지 ②, ③이므로  
 ㄷ만 판단하면 됨.  
 ㄷ은 무지의 배일로 판단 가능함.  
 그러면 끝임.  
 이 해설을 못 알아 듣는다면 공부  
 를 다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ㄱ 선지는 아래 기출 참고.

[24-9-15]

(가)

갑: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한다.  
 을: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의 천부적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그 개인에게 있다.



〈보 기〉

ㄱ. A: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ㄴ. B: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ㄷ. B: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가?  
 ㄹ. C: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하나 더. ㄱ 선지 바나나 선지이지 않을까? 과세(세금 부과)가 개인의 소유권리를 '필연적으로' 침해하면 국가는 어떻게 존재해? 국가는 땅파먹고 사나??????

ㄷ 선지는 아래 자료 교재 참고.

[자료교재] 90쪽

(9) 무지의 베일에 의해 확률에 대한 모든 지식은 배제된다. 당사자들은 그들 사회의 가능성 성격이나 그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 (그러나) 그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나머지 선지 간단 설명

ㄴ. 자기 노동으로 취득했다라도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취득이면 부당함. 기출로 출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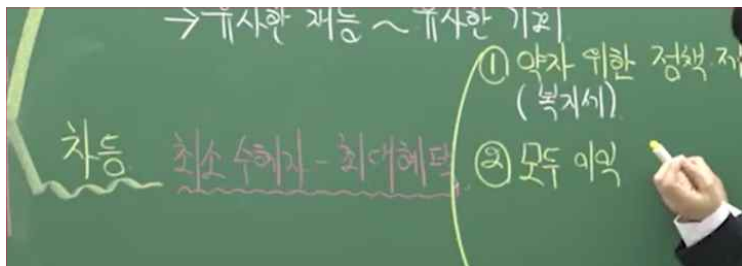
[22-6-7]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을: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달리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 ① 갑: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 ② 갑: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을: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을: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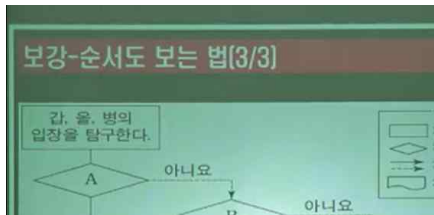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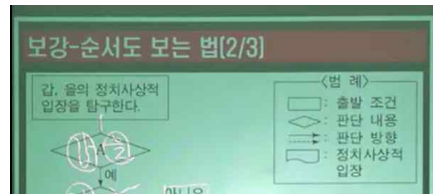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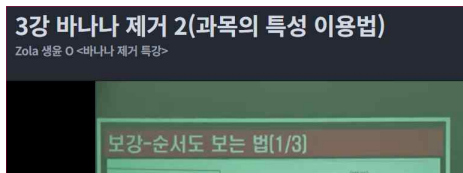
ㄹ은 워낙 많이 나와서 생략하겠음. ㄴ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강의 다시 듣거나, 필기 다시 확인해 볼 것을 권함. 아마 모든 샘들이 강조할 것임. 누구 강의를 들어도 필기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가끔 순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바나나 특강에서 강의해 두었음.

생각보다 많아서 무려 3개나 연습시켰음.

강의 보신 분은 알 거임. 경희대빠사님과 햄스터랑씨앗먹기님의 티키타카를.....진심 그 두 분을 만나보고 싶음



20. 독해로 끝임!

but 엘리야데의 종교관은 지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음. 항상 독해로 '만' 나오는 것은 아님.

종교의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원시적 성현(聖顯)에서부터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비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현현(顯現)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종교적 인간은 곧 그것이 돌 자체나 나무 자체의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설명 더 할 것 없지 않나??

- 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루기에 공존할 수는 없다.
- ②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 ③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성(聖) 그 자체이다.
- ④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III. 참고 자료

[참고] 메가스터디 정답률

| 번호 | 정답 | 정답률 | 선지별 선택비율 |     |     |     |     |
|----|----|-----|----------|-----|-----|-----|-----|
|    |    |     | 1        | 2   | 3   | 4   | 5   |
| 1  | 3  | 93% | 4%       | 1%  | 93% | 1%  | 1%  |
| 2  | 5  | 74% | 4%       | 3%  | 9%  | 11% | 74% |
| 3  | 1  | 83% | 83%      | 4%  | 3%  | 5%  | 6%  |
| 4  | 4  | 73% | 6%       | 3%  | 11% | 73% | 7%  |
| 5  | 5  | 75% | 2%       | 18% | 3%  | 2%  | 75% |
| 6  | 1  | 28% | 28%      | 18% | 18% | 29% | 7%  |
| 7  | 5  | 75% | 2%       | 4%  | 8%  | 11% | 75% |
| 8  | 4  | 43% | 15%      | 31% | 5%  | 43% | 6%  |
| 9  | 4  | 79% | 7%       | 10% | 3%  | 79% | 2%  |
| 10 | 5  | 44% | 7%       | 12% | 19% | 18% | 44% |
| 11 | 1  | 95% | 95%      | 1%  | 1%  | 1%  | 1%  |
| 12 | 5  | 79% | 3%       | 1%  | 1%  | 15% | 79% |
| 13 | 3  | 92% | 3%       | 1%  | 92% | 3%  | 1%  |
| 14 | 3  | 52% | 5%       | 24% | 52% | 13% | 5%  |
| 15 | 4  | 51% | 21%      | 7%  | 4%  | 51% | 17% |
| 16 | 2  | 73% | 5%       | 73% | 7%  | 3%  | 12% |
| 17 | 2  | 29% | 40%      | 29% | 14% | 12% | 6%  |
| 18 | 4  | 81% | 1%       | 12% | 4%  | 81% | 2%  |
| 19 | 3  | 36% | 7%       | 12% | 36% | 25% | 20% |
| 20 | 2  | 78% | 2%       | 78% | 10% | 3%  | 7%  |

[참고] ebsi 오답률 15

| 순위 | 문항 번호     | 오답률         | 정답 | 선택지별 비율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2         | 33          | ⑤  | 5.6     | 2.8  | 10.1 | 14.5 | 67   |
| 10 | 4         | 32.1        | ④  | 7.1     | 3.3  | 13.5 | 67.9 | 8.2  |
| 13 | 5         | 28.8        | ⑤  | 1.7     | 21.6 | 2.8  | 2.8  | 71.2 |
| 1  | <b>6</b>  | <b>80.5</b> | ①  | 19.5    | 19.1 | 19.2 | 33.4 | 8.8  |
| 12 | 7         | 30.3        | ⑤  | 1.6     | 4    | 9.6  | 15.2 | 69.7 |
| 4  | <b>8</b>  | <b>63.2</b> | ④  | 16.7    | 32.8 | 6.4  | 36.8 | 7.3  |
| 15 | 9         | 25.9        | ④  | 8.8     | 12.7 | 2.7  | 74.1 | 1.7  |
| 5  | <b>10</b> | <b>63</b>   | ⑤  | 9.5     | 14.6 | 18.3 | 20.5 | 37   |
| 14 | 12        | 26.8        | ⑤  | 5.3     | 1.8  | 0.7  | 18.9 | 73.2 |
| 6  | <b>14</b> | <b>61.1</b> | ③  | 4.5     | 34.1 | 38.9 | 15.5 | 6.9  |
| 7  | <b>15</b> | <b>58.5</b> | ④  | 21.5    | 8.4  | 6.1  | 41.5 | 22.5 |
| 8  | 16        | 35          | ②  | 5.6     | 65   | 9.7  | 4    | 15.6 |
| 2  | 17        | 79          | ②  | 48.3    | 21   | 13.2 | 11.7 | 5.8  |
| 3  | 19        | 71.3        | ③  | 7.2     | 12.1 | 28.7 | 27.7 | 24.3 |
| 11 | 20        | 32.1        | ②  | 2.4     | 67.9 | 15.9 | 5    | 8.8  |



**생윤은 김준호**  
 @SAENGYOONZOLAKING · 구독자 6.55천명 · 동영상 84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수석 졸업 ...더보기  
[class.orbi.kr/course/2585](https://class.orbi.kr/course/2585) 외 링크 3개  
 구독



서울대 사회교육과 수석(졸) 강사의 콘텐츠 보물 창고

<http://bit.ly/3E0sg20>

### 학습 자료실

| 작성자           | 제목                                   |
|---------------|--------------------------------------|
| Zola(생윤은 김준호) | 문제 유형 분석 틀                           |
| Zola(생윤은 김준호) | ebs 수특 4~6단원 문제 모음                   |
| Zola(생윤은 김준호) | ebs 수특 체크 포인트                        |
| Zola(생윤은 김준호) | ebs 수특 1~3단원 모음                      |
| Zola(생윤은 김준호) | 윤리학구분, 동양윤리, 서양윤리(공리론, 의무론) 연습 문제 모음 |
| 클래스 관리자       | Zola 생윤 개념의 모든 것 1강-10강 서브노트입니다.     |
| Zola(생윤은 김준호) | 생윤 필기 목차 및 분량                        |

<https://class.orbi.kr/teacher/164/materials>